



오륙도 칼럼



김정화

**#1**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봄이다. 유엔기념공원 내의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에 새길 전사자 명단을 체크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4만여 명과 그 중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2300명의 명단을 체크하는 작업. 그들의 이름이 한 자 한 자 추모명비에 새겨질 예정이었다. 추모명비의 재료인 인디언 블랙스톤은 크

기도 크기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아 오타가 생기면 돌 전체를 바꿔야 해 이러한 확인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처음 만난 그들은 그저 빼곡한 명단에 새겨진 이름 철자로서, 나에게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저 하나의 서류 파일이자 업무로 다가왔다.

두 번째로 그들을 만난 것은 그 해 여름이었다.

유엔공원에 묻힌 2300명 용사들의 묘지 앞에 서있는 묘비를 하나 하나 촬영해 데이터화하는 과정에 서었다. 공교롭게도 작업 기간이 한여름이었다. 한여름 4만여 평 묘역에서 올라오는 지열은 상상을 초월한다. 묘비 촬영을 위해 묘비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한 컷 한 컷 찍다보면 땀이 뚝뚝 떨어지고 지열인지 땀인지 모를 추간한 느낌이 발목을 잡았다. 묘비석 위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낙엽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정성스레 묘비 사진을 찍다보면 마치 노인분 영정사진을 찍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다른 점은, 노인분들은 살아계시고, 이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점. 묘비를 찍다보니 그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공급해졌다. 스무 살에 산화한 J장병은 엄마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 여자 친구에게 어떤 남자였을까. 마지막 순간, 그들이 하고픈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 깨져가는 흔적서 찾은 용사의 삶

세 번째로 그들을 만난 것은 전사자 서류를 통해서였다.

사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안장자 기록문서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지고 바스라져 이를 전산화하는 것을 더 이상 마를 수 없는 상

황이었다. 60년 된 서류 파일을 펼치면 오래된 낙엽 냄새가 났다. 서류가 바스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 장씩 스캔을 하였는데,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새로 산 스캐너가 수시로 다운되는 바람에 의도 않게 그들의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스캔하면서 자세히 읽게 되었다. 심한 경우는 50장 정도의 사연을 가진 병사의 서류를 스캔하는데 오류가 10회 이상 나서 그의 스토리를 거의 외울 지경이 되었다. 국내 최고 사양의 스캐너가 수시로 다운이 되었지만, AS 전문가도 도무지 원인을 찾지 못해 아예 새것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자신의 짧은 삶을 마지막으로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 그랬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2** 우리는 이야기가 관심을 받고, 이야기가 입하진 상품이

가치를 창출해내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부산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 창출에 고심하고 있다.

#### 어렵지만 가치 있는 스토리 찾기

지난해 한 지역신문에서는 기획 기사를 통해 유엔군 참전용사인 제임스 그룬다씨, 허시 형제, 윌트컴 장군 등 몇 분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유엔공원에 핀 이야기꽃'이라는 소재자로 묶어내기도 했지만, 활자 형태의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BBC방송에서는 제임스 그룬다씨의 이야기(스토리텔링)를 최근 몇 년에 걸쳐 다큐멘터리로 촬영해 이를 세계 단편영화제에 출품하는 등 스토리를 활

용한 문화콘텐츠 제작이 이미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책자에 머무르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미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은,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를 감동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하지만 '평화, 애국심' 같은 진부한 표현보다, 그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문화콘텐츠)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하다.

부산 남구는 2010년 세계 유일의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공간들이 꾸며지고 있는 중이다. 각 공간의 이름에서부터 내용까지, 구체적인 스토리와 살아있는 콘텐츠로 채워 '가장 지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기획부장



&lt;222&gt;

채규종



#### 독자 에세이

### 네 잎 클로버가 준 행운의 교훈

집 근처 풀밭 곳곳에 크로버가 무리를 이루어 자라고 있다. 그들은 세 잎 열매를 서로 맞대고 부비며 산을 바람에 몸을 맡기고 흔들린다. 한 곳에 어울려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듯 소곤소곤 속삭인다.

나는 이 싱싱한 풀밭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잎이 넷 붙은 행운의 크로버를 발견했다. 가슴이 설었다. 그 잎을 따서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이 파랗게 웃고 있다.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겠구나. 나는 그 네 잎 크로버를 투명 테이프로 박제 해 지갑에 넣어 두었다. 찾아 올 행운을 기대하면서...

그 후 틈을 내어 다시 그 풀밭으로 갔다. 또 다른 행운을 찾고 싶어 서었다. 크로버 무리를 이리저리 헤집으면서 나는 네 잎 크로버를 또 발견했다. 행운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행복했다. 그런데...

돌아서서 바라본 그 풀밭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네 잎에 밝힌 크로버들이 쓰러져 있었다. 행복이 행운에게 짓밟힌 것이다. 나에게 행운이 찾아와서 그 행운이 행복을 가져다줄까?

며칠 동안 비가 오라기락했다. 비가 그치고 나는 그 풀밭에 가 보았다. 아! 짓밟혔던 크로버들이 싱싱하게 살아나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행운이 행복을 짓밟아도 행복은 곳곳이 다시 피어나 있었다. 여기저기에 하얀 꽃송이들이 얼굴을 내밀고 바람에 실랑인다. 많은 행복들이 햇살을 받으며 밝게 웃고 있었다. 하늘도 여전히 파랗게 웃고 있었다. 내 마음에 느꼈던 허나를 찍어 주면서...

정무웅(우암동)

정무웅씨가 풀밭에서 찾은 네 잎 클로버

### 아이들 독서, 부모에게 달렸어요

전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사립들은 저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 극히 일부의 승객만이 책을 읽는다.

일본 국민들의 95%가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독서통계를 보면 국민 상당수가 독서와는 거리가 좀 먼 듯하다. 일화 한 토막이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 급진장할 때 밀리리예 일본 조사단이 한국에 과전돼 6개월간 조사를 했다고 한다. 6개월만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그런데 "한국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독서 인구가 적다는 것은 창조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모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기훈(대연동)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성현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필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선웅의

1000자 지혜

222

## 천리안

조직의 리더는 조직원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한다. 물론 남보다 경력이 앞서고 실력을 인정받아 리더가 되었겠지만 더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리더로 있어왔어 비생산적이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다.

언제나 뒷자리에 군림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는 리더를 요즘 조직원들은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다. 능력 없고 감싸주지 않는 리더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조직을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여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 있으면 바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 요즘엔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긴장해야 하며 그 조직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송나라의 한 대선이 신하를 불러 분부했다.

"거리로 나가 동태를 살피고 오나라."

신하가 별 일 없다고 하자 작은 일이라도 편찮으니 말해보라 하니 신하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말씀드릴 정도는 못되지만 거리의 납죽 문을 지나는데 소, 마차가 봄비에 겨우 빠져나왔습니

다."

그 말을 들은 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하가 물러간 뒤 대선은 청소부를 불렀다.

"여기서 보니 거리의 납죽 대문 밖에 쇠뿔이 많이 쌓여 지저분하더구나. 여서 가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여라!"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하들은 "천리 밖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제부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대선이 천리안을 가졌다는 소문이 나자 그 뒤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현대에서는 통하지 않겠지만 리더는 언제나 마음과 귀를 열고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독자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사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 남구에 게스트하우스 많아져야

부산에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가 성립 중입니다. 하지만 남포동과 광복로 일대 그리고 해운대 쪽에 대부분은 밀집해 있고 신선대, 대학로

거리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남구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배낭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 그 자체로 지역 홍보센터가 되기도 합니다. 호텔이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부산시 및 경찰청에 건의

대연고개~남전동 방면과 대연고개~문현동 방면으로 내리막길 경사로 인해 과속차량이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위험이 있고 야간에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 이종양분리대 설치를 해달라는 정중선님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건의구간을 포함한 수영로는 중앙선이 단선으로 되어있어 차량충돌방

지 및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위해서는 중앙선 복선 변경 및 여유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며, 해당구간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도 부산경찰청장청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강병철 (교통행정과)

#### 철거 진행, 순찰강화도 요청

대연2구역 재개발지역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오민현씨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 기자수첩

## 24시 요양병원 중환자실

## 그 속에 피어나는 '삶의 경외'

시계 초침은 새벽 2시를 향해 열심히 원을 돌고 있다. 이 시각 나는 병동 라운딩을 돈다. 어르신들 잠자리와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전정여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집에 계속 모셔야 할지 고민이라는 상담 요청이 왔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자주 정신을 놓는다고 하면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 태우기도 부지각수이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고 했다. 직장 다니는 딸을 위해 손자들을 돌보고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눈물짓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요양병원이다. 중환자실은 밥값이 없다. 거의 거동할 수 없는 와상환자 대부분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치매는 기본, 뇌손상으로 코에 튜브를 넣어서 식사를 하는 분, 기관절개 환자, 소변 줄을 꽂은 분, 산소마스크를 한 분, 말기 암 환자 등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여러 사정으로 요양병원으로 온 이들도 있다.

코 줄, 소변 줄, 수액 등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입원 한 환자가 있었다. "어르신, 무슨 엑서리기가 이렇게 다 많아요?" 딸은 못하지만 환자는 청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다. 이런 환자는 수시로 가래를 뱉고 수액을 나눠 줘야 했다. 숨이 있는 혈관 찾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와상환자들은 목장과 의전장을 치러야 한다. 2시간 마다 체위를 바꾸고 매일 두 번 대변을 해야 한다. 중환자실에서는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다.

새벽 4시30분. 기지개를 켜고 오전 일을 시작한다. 환자를 혈압, 체온, 맥박, 호흡, 혈당체크 등 기본 검사를 한다. 코줄을 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드릴 때는 일일이 말을 건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말을 하진 못하지만 어르신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사랑한다고 하면 반응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래를 뱉어 줄



때는 눈을 떠 쳐다보거나 말을 건넬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청각은 열려 있으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드시는 어르신께 "와, 맛있겠네요!"라며 한 숟갈 떠 입에 넣어주고는 "뜨거워요?" 하고 물어보면 고개를 가로 젓는다. "내가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밥 밥 밥"하며 답하기도 한다. 이럴 때면 아이 키울 때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썼던 기억이 스친다.

국내에는 2014년 현재 1284여 곳의 요양병원이 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병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요양병원이 비인간적이지 않다. 직원들은 환자 앞에서 애교를 떨기도 하고 웃음을 주려고 노력한다. 환자가 웃으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어르신은 물어보는 것이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상당한 지인의 전정여머니는 일반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이 우선이다. 초기에 발견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혼자 계시는 것은 병을 더 악화 시킬 뿐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해 주었다.

병든 부모를 집에서 보살피는 게 아직은 우리의 미덕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이 부부가 많았으니 봉양이 아니라 받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다 안락할 수는 없지만 요양병원에는 주치의가 있어 환자상태를 바로바로 파악하고 처치에 들어가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 수 있다. 수명도 연장된다.

그리고 지인에게 "가족이 면회나 병원비 등 모든 걸 서로 협조해야 장기적인 병원생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요양병원에 입원 시켰으니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신경을 쓰지 않은 가족들이 더러 있다. 병원 직원들이 아무리 따뜻하게 돌본다 한들 가족에 비할까?

최정순 기자

치매에 걸린 노부부의 애뜻한 사람을 다룬 영화 '러블리 본즈'의 한장면.



## 산행을 떠나요

<2014. 8.>

| 구분  | 산악회    | 산행일자(요일) | 산행장소         | 연락처           |
|-----|--------|----------|--------------|---------------|
| 대연동 | 청암산악회  | 6(일)     | 산청마르겐계곡      | 010-6778-3192 |
|     | 약천산악회  | 20(일)    | 하동의 신 계곡     | 010-4655-4370 |
|     | 용호산악회  | 24(일)    | 함양 영취산       | 010-2593-0361 |
|     | 제일산악회  | 3(일)     | 화순동복천 숲길     | 011-594-4192  |
|     | 여명산악회  | 3(일)     | 포항 보경사계곡     | 010-7474-4392 |
| 용호동 | 용신산악회  | 10(일)    | 문경 도장산 쌍용계곡  | 011-488-3307  |
|     | 다산산악회  | 3(일)     | 밀양 구만산       | 010-3870-2660 |
|     | 금강산악회  | 3(일)     | 영동 백화산 둘레길   | 010-3865-9051 |
|     | 21C산악회 | 10(일)    | 전북 무주 용추계곡   | 010-6286-8525 |
|     | 여남산악회  | 10(일)    | 청도 문복산 계곡피계곡 | 010-5269-5809 |
| 용당동 | 문화산악회  | 24(일)    | 지리산 피아골      | 016-564-8882  |
|     | 용마산악회  | 10(일)    | 지리산 백운계곡     | 010-4433-8809 |
|     | 녹색산악회  | 24(일)    | 산청 백운계곡      | 010-3560-4528 |
| 감만동 | 글로벌산악회 | 17(일)    | 함양 영취산 부전 계곡 | 010-8287-1192 |
|     | 줄거문산악회 | 24(일)    | 구미 금오동천      | 010-2397-1133 |
| 우암동 | 우남산악회  | 17(일)    | 산청 기림 계곡     | 010-7520-6666 |
|     | 문현산악회  | 3(일)     | 함양 영취산 부전 계곡 | 011-9544-3434 |
| 문현동 | 원뿌리산악회 | 17(일)    | 창병 옥전계곡      | 010-4564-7769 |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륙도여성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 모집인원: 〇〇명
- 응시자격: 음악에 재능이 있는 남구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55세 이하의 성인여성으로 주 1~2회 연습참여 가능한 자
- 접수방법: 남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또는 전화접수
-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10:30~12:30 남구청 1층 대강당
- 문의처: 남구청 문화체육과 ☎607-4062